

Katherine Frankel
Boston University

청소년들에게 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문해력 개입수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학생들이 읽기기술과 전략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어떻게 읽기자아(reading identity)가 문해학습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포지셔닝(positioning)과 자아(identity) 이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문해력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읽기자아(reading identity)가 문해력개입수업을 통해 표현된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본 연구자는 서로 다른 교실에서 두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인터뷰, 현장기록, 아티팩트(artifact, 인공물)를 행위주체로서의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들의 좋은 독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교실수업에서 표현된 세상과 충돌하였지만, 학생들은 이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생은 교사의 기대에 반하여 교실규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읽기부진아로 정해진 자신의 위치를 바꾸지 못했다. 반면에 또 다른 학생은 교사가 유능한 독자의 특징으로 인정하는 것에 맞추어 교실규범에 순응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읽기부진학생의 위치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결과는 학생들의 행위주체로서의 행동과 이에 대한 교사의 해석이 학생이 독자로서 갖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교사가 가진 문해와 학습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학생들을 결핍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교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개별학생을 위한 문해교육과 개입에 대한 특정 접근법의 학문적, 사회적, 개인적 시사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실내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행아웃은 중요한 일이다”: Sims 팬픽션을 디자인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의 참여 활용

Jayne C. Lammers

University of Rochester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ies)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례들을 다루고 있어서, 온라인 공간에서 보다 평범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글을 쓰고 공유하는 사례들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논문은 온라인 공간에서 한 초보작가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네트워크 글쓰기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뉴런던그룹 (New London Group) (1996)이 제안한 의미의 디자인 (Designs of Meaning) 프레임에 관한 최근의 비평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데이터는 친온라인공간인, The Sims Writers' Hangout 으로부터 2년간의 민족지학적 조사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미의 디자인 (Designs of Meaning)의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사용된 데이터는 사이트에 쓴 작가의 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댓글들, 그녀의 Sims 팬픽션들, 인터뷰응답과 연구자의 필드노트이다. 연구결과, 이 작가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드러났는데, 이는 어떻게 사이트 안팎으로부터의 이용가능한 디자인들 (Available Designs)이 작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작가가 독자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디자인결과물들에 자신의 온라인참여를 접목시키는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친온라인공간이 어떻게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디자인관점이 이러한 형성과정을 보다 가시화함을 논의한다. 또한 본 연구는 친온라인공간속 독자가 단순히 지지적인 검토자가 아닌, 보다 복잡한 개념의 공동협력자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 결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전형적인 참여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실상황에서의 네트워크글쓰기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강점으로서의 고군분투 다시 쓰기: 고등학교 시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성찰

Logan Manning

University of Texas San Antonio

학교가 많은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근 연구들은 스포큰워드 (spoken word poetry)와 같은 관계적이고 예술에 기반한 페다고지들이 학교 및 다른 기관들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실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해온 한 도심청소년 그룹이 자신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었다는 고등학교 시수업에서 무엇을 의미 있다고 기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회고적관점을 취함으로써 본 연구는 크리티컬페다고지와 청소년 스포큰워드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로서의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시수업을 파악해보기 위해 사례연구와 인터뷰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시커뮤니티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전환점으로서의 기능을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커뮤니티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트라우마에 대한 기관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신들을 독립된 개인과 커뮤니티의 한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학교안에서 치유적관계를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해학습 커뮤니티안에서 구조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주체적인 아이덴티티를 발달시키고, 자신의 고군분투를 힘의 원천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기억하였다. 학교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가졌을 이 청소년그룹이 이 시수업과 글쓰기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은, 학교의 문해교육에 대한 비전통적 접근법의 역할을 바라보는 현재의 관점을 한층 발전시킨다.

리터러시활동으로서의 스케일링: 글로벌 연결시대의 이동과 교육불평등

Amy Stornaiuolo

University of Pennsylvania

Robert Jean LeBlanc

University of Pennsylvania

본 논문은 글로벌연결 시대에 교육자들의 주된 관심분야를 논한다. 즉, 사람, 텍스트, 그리고 활동의 이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불평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불평등하게 세계화된 환경, 심지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형성된 교육적상황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시간, 공간, 물질, 국가적 아이덴티티, 장르, 그리고 언어 등과 같은 자원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정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리터러시연구자들에게 유연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스케일(scale)의 개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이동과 이동성이 단지 이주의 문제가 아니며, 리터러시와 텍스트가 다양한 시공간 차원의 위계질서와 관련하여 항상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교육적 불평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교사들이 일상적인 리터러시활동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e.g.,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지역 민족지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문화간협력을 스칼라분석해 보았다. 어떻게 상호작용에서 다른 스케일들이 발생하고, 관련되고, 또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우리는 참가자들이 여섯 개의 스칼라방법 - 업스케일링하기, 다운스케일링하기, 정렬하기, 논쟁하기, 고정하기, 그리고 통합하기 - 을 사용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리터러시활동과 텍스트에 존재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민감한 분석도구의 개발이 시급한 이 시점에 해법을 제공한다. 스케일링을 리터러시활동으로서 개념화하는 것은 교육적협력에 있어서 세계적연계성의 순조로운 내러티브를 깨고, 모든 리터러시 활동이 가진 다중스칼라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데에 그 시사점이 있다.